

금융대출 수도권 쏠림 심해졌다

작년 증가액 142조 중 107조가 서울·경기 집중 광주·전남 등 호남권 5조원...전체의 8.7% 불과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액 격차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절반 가량이 서울에 집중되는 등 대출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한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천58조5천727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새 142조1천601억원(15.5%) 늘어났 것으로, 2006년 증가액(112조2천999억원)과 증가율(13.9%)에 비해 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대출 증가액 가운데 49.9%인 70조8천761억원이 서울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반면 같은 기간 호남권의 대출 증가율은 8.7%에 그쳤다. 지난해 말 현재 호남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총 68조3천244억원으로, 1년새 5조4천458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각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하는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기간을 1년이나 3년 등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갱신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가능연령(예컨대 70세)을 초과한 경우, 갱신 전 계약을 통해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5%에서 2005년 67.8%, 2006년 70.0%, 2007년 75.7%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은 대출 증가액의 전 국 점유율이 2004년 20.8%에서 2005년 38.3%로 높아진 후 2006년 36.1%로 추축했으나 지난해에는 4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5%에서 2005년 67.8%, 2006년 70.0%, 2007년 75.7%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은 대출 증가액의 전국 점유율이 2004년 20.8%에서 2005년 38.3%로 높아진 후 2006년 36.1%로 추축했으나 지난해에는 49.9%에 달했다.

작년 자동차 408만대 생산 한국, 3년 연속 세계 5위

日 1,160만대 1위 ...美·中 2, 3위 차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세계 자동차생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전년 대비 6.4% 늘어난 408만6천대를 생산해 3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9.8% 증가한데 힘입어 자동차 생산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1천159만6천대로 2년 연속 1위를 고수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15.9%를 차지했다. 자동차 생산국 2위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1천75만1천대를 생산한 미국이, 3위는 22.0% 증가한 888만2천대를 생산한 중국이, 독일은 619만6천대로 4위를 차지했다. 6위인 프랑스는 309만대를 생산했고, 7위는 297만3천대의 브라질, 8위는 스페인(289만대)이 각각 차지했으며 인도는 224만6천대로 10위를 차지해 10대 생산국 대열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7천307만2천대로 집계됐으며, 특히 전세계 생산량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가 차지하는 비율은 21.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美 잇단 금리인하 정책 靑 인플레이 통제력 저하”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하가 아시아 각국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2.25%포인트 인하해 기준금리를 3%로 낮췄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가파른 통화완화 조치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시장개입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50년 만의 최악의 폭설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스리랑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웃돌고, 싱가포르도 인플레이션이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감기에 좋은 늙은 호박 18일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늙은 호박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광경이 이채롭다. 늙은 호박은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기침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뇌출혈·심근경색 사망 보험 가입자 보험금 타기 쉬워진다

4월부터 의사 소견만으로 가능

오는 4월부터 질병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을 때 의사의 소견에 기초한 진단, 즉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의사로부터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면 임상학적 진단을 받아도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현행 약관은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

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질병이 증가하고 있고 갑작스런 발병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들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사인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각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하는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기간을 1년이나 3년 등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갱신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가능연령(예컨대 70세)을 초과한 경우, 갱신 전 계약을 통해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수입 철광석값 65% 올라

브라질 공급업체와 합의... 제품가격 인상 압박 전망

포스코가 철강제품의 주원료인 철광석의 도입가격을 65% 올리기로 브라질의 공급업체와 합의함에 따라 제품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일본의 신일철과 공동으로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와 철광석 가격협상을 벌인 결과 4월1일부터 기존에 비해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레는 단일업체 가운데는 포스코에 가장 많은 양의 철광석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번 합의된 가격은 호주의 리오 틸토와 BHP 빌리튼 등 나머지 철광석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기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포스코의 생산원가 가운데 철광석은 30~40%를 차지하고 있어 철광석 도입가가 65% 오른다면 20% 이상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포스코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철광석과 비슷한 유연탄에 대해서도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광산업

체들은 중국의 폭설사태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최대 10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분기중 제품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코는 그러나 이와 같은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 인상을 전부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북 고가아파트 늘었다

'6억 이상' 1년만에 1만700가구 증가

지난해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강북권에서는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서비스'에 따르면 강북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비강남권 21개구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1,111대씩 이전 12만853가구에서 현재 13만1천546가구로 1만693가구(8.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 4개구에서 6억 초과 아파트는 20만6천44가구에서 20만6천175가구로 131가구(0.06%)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작년보다 45% 가량 늘어나고 입주하는 2가구 중 1가구는 강남 4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남발 집값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적절한 보험상품 권유 못한다

금감위 "적합성 원칙 도입"

금융감독위원회 이승우 부위원장은 18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금융정책포럼 강조연설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재무상태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측면에

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도입해 불안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상품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심사규제를 개편해 일부 신고상품 이외에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스트전자	정규직 생산관리 간부직급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9	062-955-1532
에스디엘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관리 담당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1	062-374-0650
월드투어	이벤트행사 및 출장연회 담당 매니저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515-7800
남해종합개발	경력사원 모집(건축/기계/안전/전기/소방/관리/경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220-2514
오페라벨비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사무직(회계), 식음주방 인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956-9405
디자인비전	편집디자인(MAC) 정규직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3	062-233-8031
국인원	환경영향평가원/토양누출검사/생태관련 검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3	062-515-4666
그린텔	KTF 광주점비즈니스 정규직 상담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42-223-49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막 증착 및 식각 공정/장비 운영 연구 발전적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6006-508
아이티블루	영업관리/경리회계 사무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2-234-1439
고시학원	웹디자인 정규직 사원모집	회사내규	02/25	062-222-8260	
ING생명(본사)	[본사공채]남여상당연모집-월300만이상-중식제공(교육시)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2/26	02-3452-2612
다인시스템	자동차 기술자 직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1년	1800~2000	02/28	062-972-7744
동국전자	공무과/설비유지보수 및 공장관리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28	062-952-4492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삼성전자 '글로벌기업 톱 3'

소비재기업중 작년 매출 905억달러

1위 알트리아·2위 휴렛패커드 차지

삼성전자가 소니와 노키아 등 글로벌 유수 경쟁브랜드를 제치고 전 세계 소비재기업 중 브랜드 매출 3위를 차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컨설팅 조직인 딜로이트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250개 소비재 기업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딜로이트는 작년 중반까지 산별적으로 발표된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2006년도 회계자료를 분석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 순매출순위를 매겨 이번에 상위 250개 기업을 발표했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브랜드 매출과 순위가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위는 '필립 모리스'로 유명한 담배 및 음료기업인 알트리아(1천14억700만 달러)가 차지했고 2위는 전자업체인 휴렛패커드(916억5천800만 달러)였으며, 삼성전자는 휴렛패커드에 조금 못 미치는 905억5천100만 달러의 순매출을 올려 3위에 올랐다.

상위 10개 기업 중 전자업체가 7개나 오를 정도로 전자업체의 브랜드 매출과 순위가 돋보였다. 휴렛패커드, 삼성전자 외에 일본의 마쓰시타(5위), 소니(7위), 도시바(8위), 미국의 델(9위), 핀란드의 노키아(10위) 등이 상위 톱 10에 올랐다.

한국기업 중에서 톱 10에 진입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고 LG전자는 491억2천만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해 12위에 올랐다. 이밖에 CJ(66억3천700만 달러)가 97위, 한국타이어(33억6천300만 달러)는 179위, KT&G(29억8천500만 달러)가 201위에 올랐다.

대학 4년생 졸업후 진로는... 대기업 > 공기업 > 전문직

서울은 대기업 지방은 공무원 선호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 4학년생들은 대기업·공기업·전문직·공무원 등의 순으로 자신의 진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과 함께 대학 4학년생 653명에게 '졸업 후 진로를 정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5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진로를 정한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길은 '대기업 입사'(23.4%)였다.

이어 '공사 및 공기업 취업'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취득'이 각각 13.6%였다. '6급 이하 공무원 취업'(11.3%), '중견기업 입사'(10.8%), '대학원, 편입학 등 진학 및 유학'(10.5%)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남성은 '대기업 입사'(30.1%)와 '공사 및 공기업 취업'(17.7%) 등에 많이 몰렸다. 여성의 경우 진로목표가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남성에 비해 '전문자격 취득'(18.0%)과 '중견기업 입사'(12.8%) 등의 비율이 높았다.

대학소재지별로는 서울권 대학생들은 '대기업 입사'가 36.4%로, 지방권 대학생들의 1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방권 대학생들은 반면 '공무원 취업'(13.7%)과 '진학 및 유학'(13.3%)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서울권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